

# 11월간 산업 이슈(11월)

## Monthly Industrial Issue

### 업종별 주요 이슈

#### 산업 이슈 최근 국내 기업의 재고자산 급증 현상에 대한 리스크 점검

- 최근 V자 반등 이후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국내 제조기업의 높은 재고수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 재고자산 관련 리스크를 검토
- 재고자산 관련 지표 상 현재 기업의 재고자산 규모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의 완만한 회복, 원자재 가격의 상향 안정화 추세를 예상할 때 기업의 재고자산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그러나 매출액 증가율 대비 재고자산 증가율, 기업별 재고자산 구성 변화 등의 재무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는 대응할 필요

#### 조선 카타르 LNG선 수주로 한국 조선업 10월 수주 1위 탈환

- LNG 수요 증가와 더불어 카타르의 LNG 프로젝트 일환으로 LNG선 발주가 증가, 한국 조선소로 수주 집중되며 한국 조선업 수주 점유율은 중국을 제치고 1위 재탈환
- EU에서는 LNG선 수주 독점 심화를 이유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에 대해 설비 감축 등 조건부 승인을 걸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국 조선업의 외형 축소 우려는 높아지고 있음

#### 건설 해외 수주 회복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상황

-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해외 수주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최근의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정여력 악화 등으로 과거와 달리 수주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한편, 성장잠재력 견인을 위한 각국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될 것이나 대부분 투자개발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각국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상황

#### 유통 온라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라스트마일 투자 확대

-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 하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라스트마일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물류 인프라별(풀필먼트, 매장 전용, 퀵커머스), 상품별(배달, 콜드 체인, 동대문)로 다변화
- 온라인화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물류 투자 부담으로 소매유통업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저하 되는 상황에서 최근 풀필먼트, 퀵커머스 등 고비용 물류에 투자가 집중되는 점은 우려 요인

## 여행

### 위드 코로나 시행, 아웃바운드 여행 회복으로 이어지나?

- 유럽, 미주 등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국제 이동에 대한 장벽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IATA에서는 2022년 세계 항공 여객 인원이 2019년의 75%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국내 여행사들은 정상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관광 가능지역 중심으로 여행상품을 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금년말부터 점진적으로 아웃바운드 수요가 회복될 전망

# 산업별 경기 트렌드

경기사이클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C10-11. 음식료품	음식료				●		
C13. 섬유	섬유		●				
C14. 의류	의류						●
C19. 정유	정유	●					
C20-21. 화학제품	석유화학				●		
	제약				●		
C22. 고무,플라스틱	고무,플라스틱	●					
C23. 비금속광물	시멘트						
C24. 1차 금속	철강			●			
	비철금속			●			
C26.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통신장비(휴대폰)			●			
C29. 기계	일반기계		●				
C30. 자동차	자동차			●			
C31. 가타운송장비	조선		●				
D.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		
F. 건설	건설						●
G. 종합유통	무점포(온라인)			●			
	종합소매업(대형)			●			
	편의점			●			
H. 숙박 및 음식점	숙박(N/A)		●				
I. 운수	해상운송					●	
	항공운송	●					
J. 통신,미디어	통신서비스			●			
	SW/SI			●			
L.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						●

## 산업 이슈

산업 이슈 : 최근 국내 기업의 재고자산 급증 현상에 대한 리스크 점검

조선 : 카타르發 LNG선 발주로 한국 조선업 10월 수주 1위 탈환

건설 : 해외 수주 회복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상황

종합유통 : 온라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라스트마일 투자 확대

여행 : 위드 코로나 시행, 아웃바운드 여행 회복으로 이어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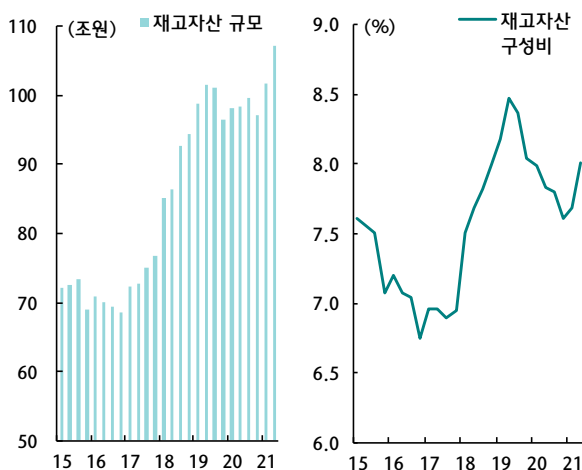
## 산업 이슈 최근 국내 기업의 재고자산 급증 현상에 대한 리스크 점검

※ **Summary** : 최근 V자 반등 이후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국내 제조기업의 높은 재고수준에 대한 우려감이 점증. 기업의 재고자산(원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기업의 재고자산 규모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의 완만한 회복 및 원자재 가격의 상향 안정화 추세를 예상할 때 국내 기업의 재고자산 관련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편. 그러나 재고자산 관련 재무 지표(매출액 증가율 대비 재고자산 증가율, 재고자산 구성 변화 등)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는 대응할 필요

### ■ 최근 V자 반등 이후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의 높은 재고수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 재고자산 관련 리스크를 검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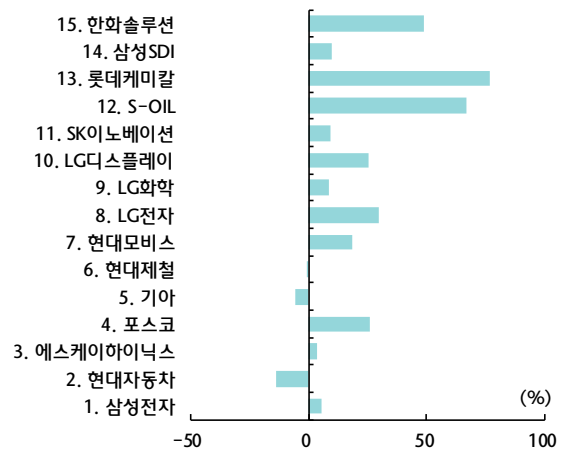
-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 및 인플레이션(원자재 가격 및 노무비 등의 제품 제조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원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규모가 크게 증가
  - 2021년 6월말 재고자산 규모 기준으로 국내 자산총액 상위 15개 제조기업 중 80%의 재고자산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재고자산 구성비(총자산 중 재고자산 비중)가 상승
-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재고자산은 경기 호조 시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 반면, 경기 둔화 시 악성재고로 작용하면서 기업 재무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향후 글로벌 공급망 마비,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재고자산 관련 리스크를 평가해 볼 필요

그림1 |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규모 및 총자산 대비 비중 추이



주 : 재고자산 구성비는 총자산 중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2 | 2021년 국내 대기업의 재고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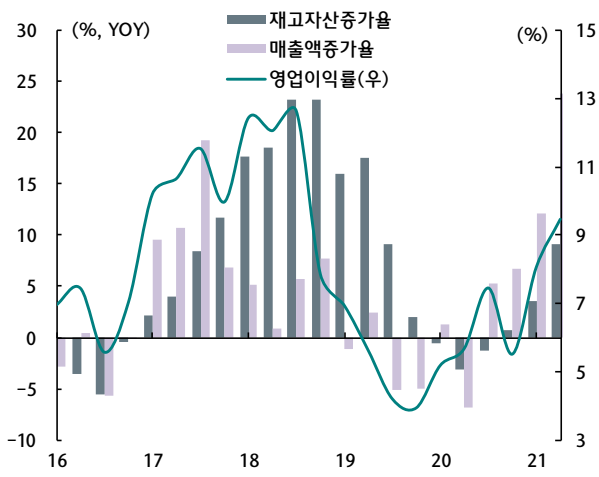


주 : 총자산 기준 순위이며, 2021년 6월말 재고자산의 전년 동월 대비(YOY) 증가율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기업의 재고자산 관련 지표를 살펴본 결과, 현재 기업의 재고자산 규모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향방에 따라 결정될 전망

- 재고자산의 절대적 규모가 아닌 매출액 증가율 대비 재고자산 증가율, 재고자산 회전율 등과 같은 기업의 재고자산 관련 재무성과 지표를 살펴보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 팬데믹 충격 이후 최근 3분기 동안(2020년 3분기 ~ 2021년 2분기) 국내 제조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재고자산 보다 가파르게 늘면서 수익률(영업이익률)이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수급과 재무성과를 시현
  - '20년 2분기를 저점으로 재고자산 증가율이 상승 전환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최근 1년 간 4%p 상승
- 영업 활동성 지표인 재고자산 회전율 또한 2020년 초 팬데믹 충격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고 있어 기업의 재고 효율성이 개선되는 모습
  - 재고자산 회전율(매출액/평균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판매 속도를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재고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
- 따라서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규모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향방에 따라 재고자산의 잠재 리스크 발생 여부가 결정될 전망
- 이에 향후 국내외 경제(GDP) 성장률, 원자재(원유, 금속 등) 가격 변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유·금속·화학 등의 소재산업의 재고는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

그림 03 | 기업 실적과 재고자산 증가율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 04 | 국내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회전율 추이



주 :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원가 대비 평균 재고자산으로 계산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표1 | 산업별 원자재 가격과 재고자산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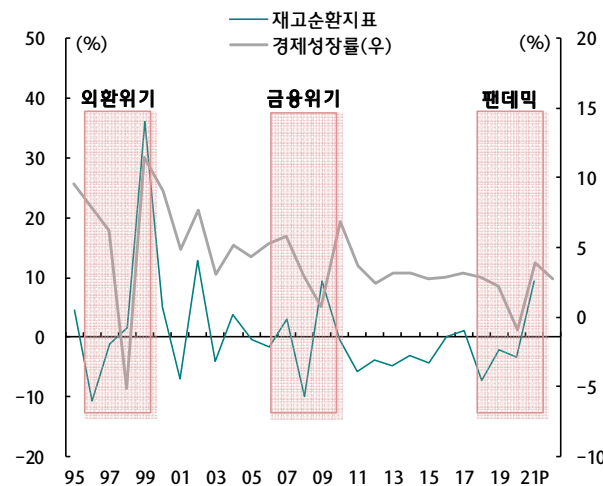
산업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	의복	가죽, 가방, 목재, 나무펠프, 종이	인쇄	석유정제	화학	의약품		
증가율	-0.03	-0.12	-0.24	<b>0.48**</b>	-0.53	-0.17	0.17	0.19	-0.4	<b>0.66***</b>	0.19	0.23
산업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차 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정밀기기	전기장비	기계	자동차	조선	가구	기타 제품
증가율	-0.09	<b>0.37**</b>	<b>0.45**</b>	-0.01	0.18	<b>0.57**</b>	0.34	-0.07	-0.35	-0.14	<b>0.39*</b>	-0.33

주 : 피어슨 상관관계로 \*, \*\*, \*\*\*는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Korea PDS,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022년 국내외 경기의 완만한 회복, 원자재 가격의 상향 안정화 추세를 예상할 때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관련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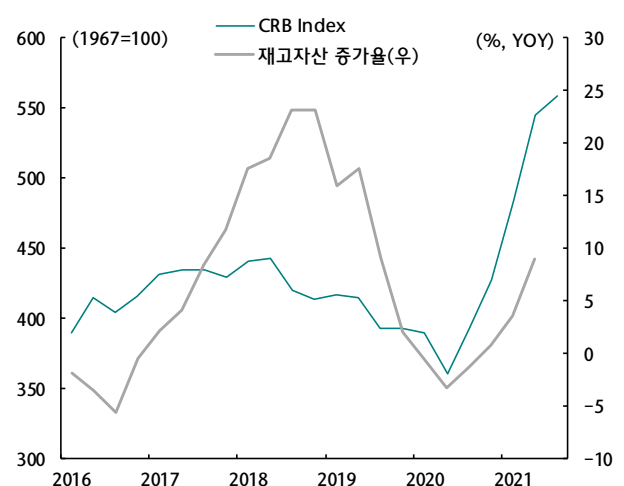
- 장기 추세 상 과거 위기(97 외환위기, 08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현재 재고자산 관련 지표의 변화는 외부 충격 직후 V자 반등 이후의 기저효과 소멸 등에 따른 시장 둔화 수준인 것으로 평가
- 향후 정부의 정책지원 축소 등으로 국내외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년 하반기 이후 재고순환지표의 하락 가능성은 있으나, 추세 상 완만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대적인 위기로 번질 위험은 제한적
  - '22년 국내외 경제는 백신 보급 진전 하에 완만한 회복 예상(단, 정부 정책지원 축소로 모멘텀은 약화)
- 즉, 현재의 팬데믹 충격은 과거 2번의 위기 대비 경제성장률의 하락 폭이 작고 수급(공급과잉)에 미치는 영향도 작은 편
  - 위기 시기별 재고순환지표 비교 : 외환위기 -10.8%p, 금융위기 -9.9%p, 팬데믹 충격 -3.4%p
- 다만, 상대적으로 수급(월별 재고순환지표)이 악화되거나, 국제 원자재 가격과 자산가치의 연관성이 높은 소재산업(정유, 금속, 화학 등)의 경우 원자재 가격 향방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필요
  - 국제 원자재 가격과 재고자산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는 산업은 섬유, 정유, 비금속 광물, 1차금속(철강, 비철금속), 의료·정밀기기, 가구 등
- 2022년 전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 하에 원자재 가격의 상향 안정화 추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소재산업 중 정유 · 석유화학 · 철강은 안정적 수급을 이어가나, 고무 및 플라스틱의 경우 저가 후발국 제품과의 경쟁심화로 수급 악화가 우려

그림5 | 국내 경제성장률과 재고순환지표 전망



주 : 제조업, 연 단위  
 자료 : Korea PDS,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6 | 국제 원자재 가격과 국내 기업의 재고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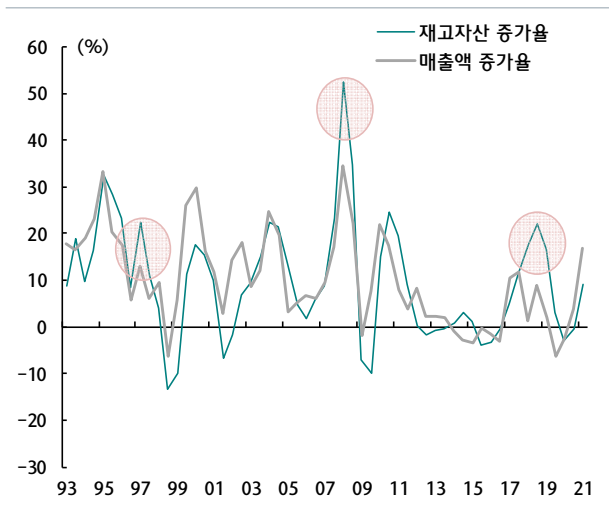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철강신문주 : 제조업, 분기 단위  
 자료 : Korea PDS,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그러나 재고자산 관련 재무 지표(매출액 증가율 대비 재고자산 증가율, 재고자산 구성 변화 등)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대응할 필요

- 재고자산의 절대적 규모 외에 재고자산의 상대적 가치와 활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변화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
- 즉, 재고자산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 보다 높다는 것은 공급과잉을 의미하는 위험 경고 시그널이므로 재고자산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
  - 과거 추세 상 재고자산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 보다 높은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제품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업의 실적(매출증가율, 영업이익률)이 악화
- 또한 재고자산은 원재료, 재공품 · 반제품 · 제품 · 저장품 등으로 구성되는데, 산업 · 기업별로 전체 재고자산 중 비중이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 기업 개별적으로 영업상황과 결부시켜 검토하는 것이 중요
  - 원재료 및 재공품보다 제품(상품) 재고가 빠르게 늘고 그 비중이 큰 경우 수요가 불안할 가능성 높
- 더 나아가 원재료 조달과 관련한 공급망 이슈 등으로 일시적인 원재료의 물량 변동이 전체 재고자산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 수요 변동과 관련된 수급 변화인지를 파악할 필요
- 또한 저가법(K-IFRS)을 원칙으로 하는 재고자산 평가 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 향방에 따라 자산가치 변화(가격 하락 시 평가손실 발생)가 큰 산업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
  - K-IFRS 상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진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손익계산서)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되면서 매출원가에 반영

그림7 | 제조업의 재고자산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 추이



주 : 제조업, 반기 단위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표2 | K-IFRS 상 재고자산 관련 계정 예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고자산 (전체)	33,592,385 (1,415,358)	매출	129,060,088
제품 및 상품	8,349,111 (363,544)	매출원가 (재고자산 평가손실 포함)	78,565,916 (591,381)
반제품 및 재공품	11,127,025 (385,308)	매출총이익	50,494,172
원재료 및 저장품	12,947,411 (666,506)	판매비와 관리비	28,544,559
미착품	1,168,838	영업이익	21,949,613

주 : 2021년 상반기 기준이며, ( )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자료 : 삼성전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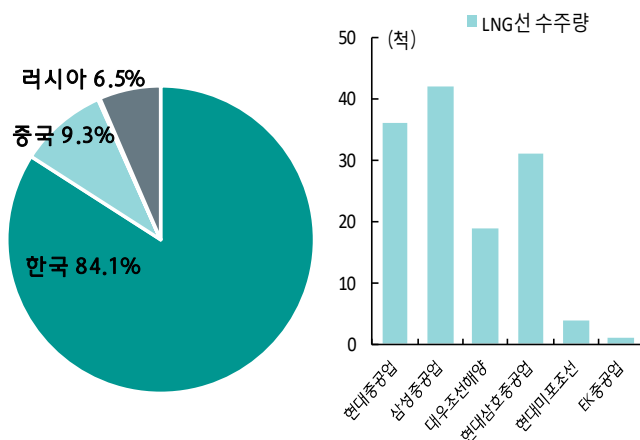
### C31. 조선 : 카타르發 LNG선 발주로 한국 조선업 10월 수주 1위 탈환

※ **Summary** : 최근 LNG선 spot 운임이 급등함과 더불어 LNG선 발주량이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 중. 10월 초 중국이 LNG선 4척을 수주하면서 한국 조선사에 위기로 다가오는 듯하였으나, 남은 한 달간 한국 조선소가 카타르發 LNG선 수주를 확보하면서 수주 점유율 1위를 재탈환. 미국의 LNG 수출 증가 계획에 따라 LNG선 시장은 한동안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EU에서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 심사를 'LNG선 수주 독점'을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설비 감축으로 인한 외형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

#### ■ 카타르發 LNG선 대형 수주 시작되며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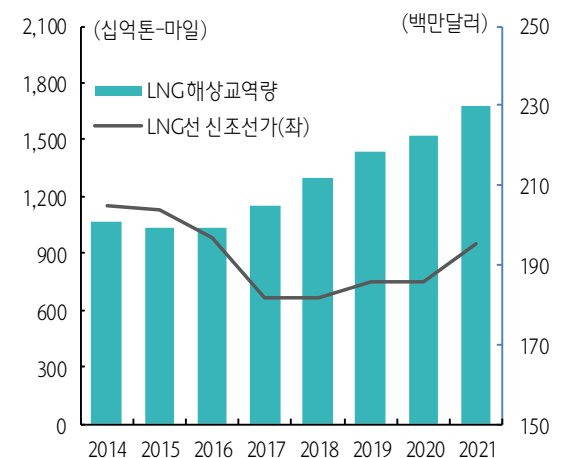
- 총 23조원 규모의 카타르 LNG 운반선 발주가 시작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랠리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조선사당 40척 이상이 몇 년에 걸쳐 이어질 전망
  -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으로 주요 국가들의 LNG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현재 7700만톤 규모의 LNG 생산능력을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힘
- 10월 초 중국의 LNG선 수주가 있었으나 남은 기간 한국 조선소가 카타르 물량을 쓸어 담으며 한국의 LNG 수주 점유율은 84.1%를 기록
  - 업체별 LNG선 수주잔고는 현대중공업 36척, 삼성중공업 42척, 대우조선해양 19척, 기타 36척 등
- 한편, 북반구는 동절기에 접어들어 LNG 수요 증가하여 LNG선 운임 또한 상승하였고, LNG 선가는 2억달러 수준을 회복하여 국내 조선사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LNG선 선가(단위 : 백만달러) : (21.01) 186.5 → (21.04) 188 → (21.07) 195 → (21.11) 203

그림8 | 국가별 LNG선 수주잔고 점유율 및 업체별 LNG선 수주잔고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9 | 전 세계 LNG 해상교역량 및 LNG선 선가 추이



자료 :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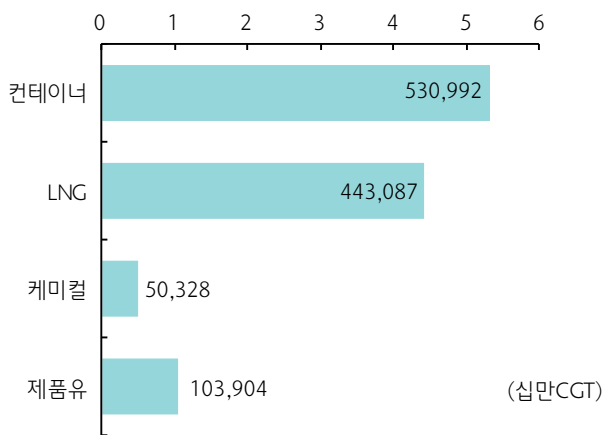
■ LNG선 수주 증가와 더불어 컨테이너선 수주도 증가하며 도크 설비 추가 가동 논의가 있으나, 고정비 상승과 협상력 하락으로 인한 선가 하락 우려로 재가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21년 전반적으로 나타났던 컨테이너선과 LNG선의 수주강세는 10월에도 이어가는 양상을 보이며, 2024년까지 국내 조선사의 슬롯 계약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
- 2016년 수주 가뭄 이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운영 중이었던 도크를 각 2기씩 가동 중단하였으나, 최근 수주 증가에 따라 ‘도크 재가동’으로 눈치싸움에 들어감
- 도크 재가동은 수주 여력을 높이지만 고정비 지출 확대와 가격 협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가동 확률은 당분간 낮을 것으로 보임
  - 추가 가동할 도크가 없는 조선소는 도크 재가동시 수주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고,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어 도크 재가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
  - 한편 현대중공업은 울산 4, 5도크의 재가동 계획이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밝혔으며, 삼성중공업은 2019년 1기를 재가동한 상황이라 내년에 남은 1기의 재가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한편, ‘LNG선 독점’ 이슈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 심사는 난항이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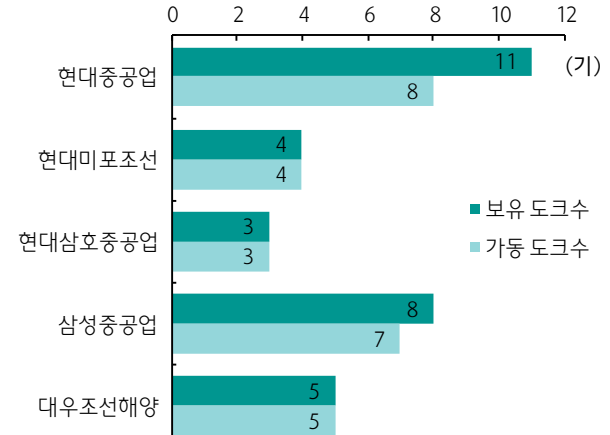
- 19년 산업은행이 보유하던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한국조선해양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합병 결정되었으나, EU, 한국, 일본의 경쟁당국에서 3년째 결합심사 단계에 체류 중
- EU는 선주가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수주 독점에 민감한 편이며, 양사 결합에 따른 LNG선 수주 독점 심화에 ~대해 설비 감축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LNG선 수주 합산 점유율은 매년 60%를 초과하고 있음
  -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우 외형 축소에 따라 합병 시너지가 제한적으로 발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한국의 LNG 수주량 중 일부는 해외 이탈 가능성이 높아 결합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있음 📌

그림10 | 국내 조선소 10월 수주 현황



자료 : Clarkson

그림11 | 조선사 별 도크 운영 현황



자료 : 각사 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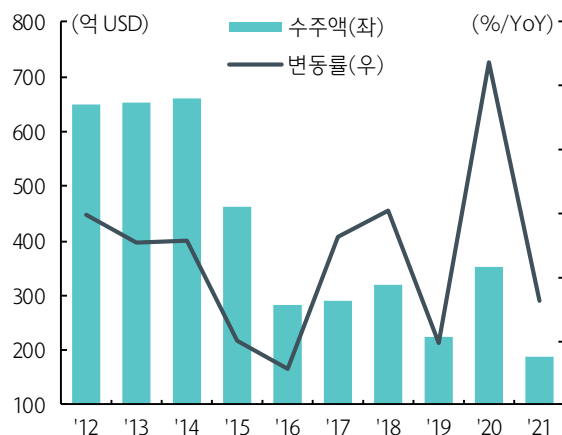
## F. 건설업 : 해외 수주 회복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상황

※ **Summary** : 백신개발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대응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탄소저감 등으로 중장기 측면의 수요감소가 불가피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중동지역의 재정적 충격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와 달리 유가상승이 중동지역 수주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 다만, 각국이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발주국가의 사정에 맞는 최적의 진출 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수주 확대의 관건이 될 전망

###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지속되면서 해외 수주는 전년대비 감소한 300억불 내외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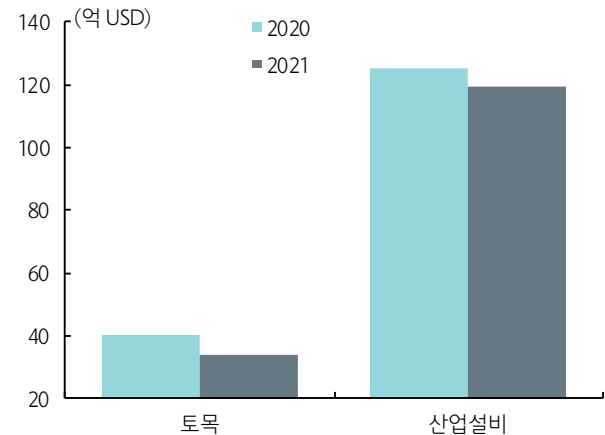
-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해외 수주 실적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팬데믹 현상이 올해까지 장기화됨에 따라 건설 수주액은 감소로 전환
  - 2020년 수주액 확대는 민관 협력을 통한 수주 극대화 와 2019년 수주 이월이 합쳐진 결과
  - 2020년 하반기 이후 각국의 인력이동이 크게 제한되면서 수주활동 위축은 올해까지 지속
- 국가별로 환자 발생 상황, 백신 접종 현황 등 보건위생 환경이 다른데다 외부로부터의 환자 유입을 우려하는 여론도 높아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활동이 극히 위축
  - 주요국 접종률('21.11월 기준) : 사우디 62.4%, UAE 88.4%, 베트남 29.6%, 알제리 11.6%
- 여기에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착공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해외 수주액은 300억불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할 전망

그림12 | 해외 수주 실적



주 : 2021년 수주액은 11. 9일 현재 기준  
자료 : 해외건설협회

그림13 | 주요 공종별 수주액 변화



주 : 미분양은 '21.7월말 기준, 분양예정물량은 '21.9월말 추산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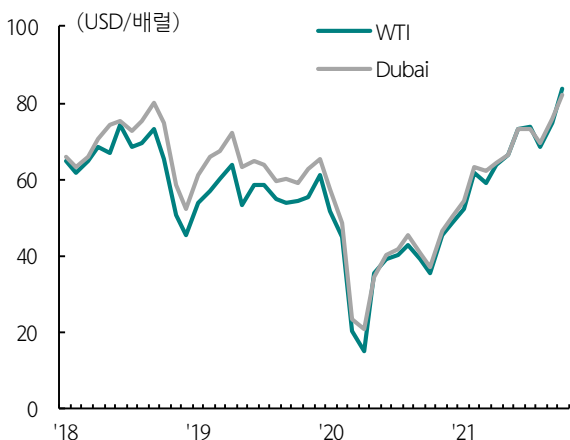
■ 최근 유가가 상승했으나 전통적 수요지역인 중동지역 수주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

-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했으나 단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수요 감소가 불가피해 과거와 같은 수주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백신 접종으로 일상 복귀가 이어지면서 수요는 확대되나 생산 증대가 지연되면서 가격 급등
- 미국의 일상 복귀 및 수익성 회복에 따른 셰일가스 생산 재개, 세계 각국의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에 따른 중장기 수요 감소 등 수급여건 개선의 여지는 높은 편
- 또한, 팬데믹 시기 유가 급락으로 산유국들이 받은 재정적 충격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 과거와는 달리 유가 상승이 건설 수주 증가로 즉각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
  - 2020년 중동 각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 12.6%, UAE 11.1%, 쿠웨이트 11.3%, 이라크 22.3%

■ 반면, 글로벌 인프라 수요는 확대되고 있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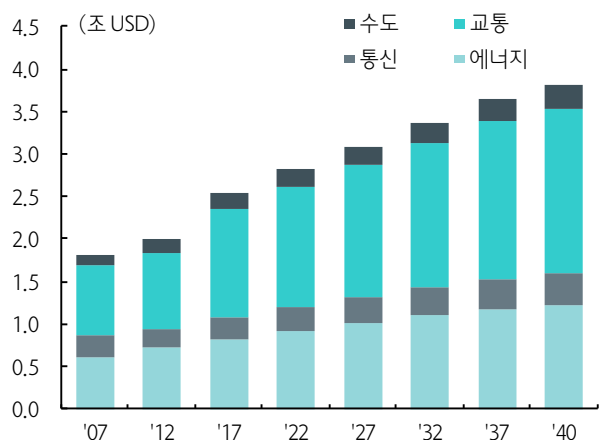
- 인프라는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2022년 기준 2.8조원 수준이던 수요가 2040년에는 3.8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IMF 등은 각국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고 중장기 성장 잠재력 재고를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으며 미국, 유럽 등도 관련 정책을 제시 중
  - 미국은 향후 8년간 2.8조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며, EU는 450억 유로 규모의 역내 투자 계획 외에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대응한 ‘글로벌 게이트 웨이’ 확충 계획을 발표
- 단,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턱키방식 발주보다는 건설사 등이 금융조달 및 운영책임까지 부담하는 투자개발형으로 주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국 정부의 발주 조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필요성이 존재 **5**

그림14 | 국제 유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15 | 글로벌 인프라 수요 추정치



자료: 글로벌인프라스트럭처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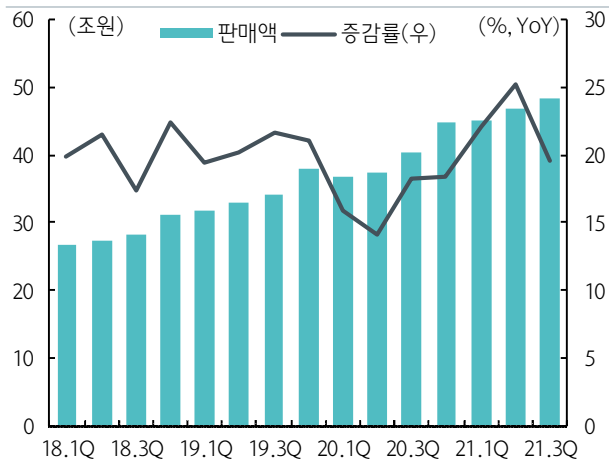
## G. 종합유통 : 온라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라스트마일 투자 확대

온라인 쇼핑몰의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라스트 마일의 중요도 또한 상승. 이에 따라 업체들의 라스트마일 관련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물류 인프라별로는 풀필먼트(온라인 전용 통합 물류 시스템), 다크 스토어(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 거점화), 킥커머스(도심지 MFC 기반 신속 배송)로 투자가 다변화. 배송 상품별로는 음식, 신선식품, 의류 분야에서 각각 배달, 콜드체인, 동대문 풀필먼트 등이 성장. 온라인화에 따른 가격 경쟁 및 물류 투자로 소매유통업 전반적인 수익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최근 고비용 물류에 투자가 집중되는 점은 안정성 우려 요인

### ■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 지속 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라스트마일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 모바일 부문 호조로 약 20%의 성장세를 나타내었던 온라인 쇼핑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양호한 성장세 지속
  - 2021년 3분기 누적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140.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2% 성장
- 고령층 등 신규 소비자 유입, 사업 모델의 다변화 등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이 지속되며,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라스트마일의 중요도도 상승
  - 라스트마일 :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배송 단계,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을 의미
  - 아마존의 FBA, 쿠팡의 로켓배송, 마켓컬리의 새벽배송과 같이 배송 경쟁력 기반의 국내외 온라인몰 성공 사례 또한 라스트마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
- 풀필먼트, 오프라인 매장 전환, 도심지 킥커머스, 음식 배달, 콜드 체인, 동대문 풀필먼트 등 다양한 형태의 라스트마일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그림16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추이



자료 : 통계청

표3 | 물류 인프라, 배송 상품별 라스트마일 형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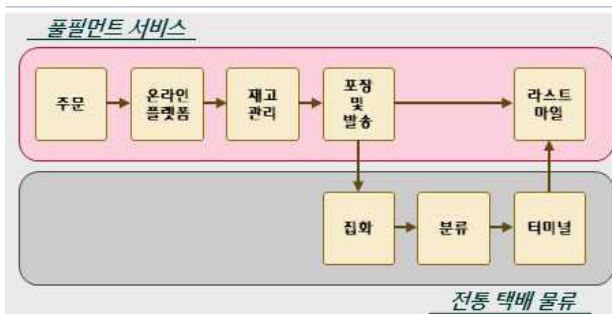
구분	내용	
물류 인프라에 따른 구분	풀필먼트	- 온라인 전용 대규모 물류 통합 인프라(창고, 솔루션)
	매장 전용	-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 물류 거점화
	킥커머스	- 도심지 MFC(마이크로풀필먼트)기반의 근거리 신속 배송
배송 상품에 따른 구분	음식 배달	- 이륜차 기반 식당 음식 배달
	콜드 체인	- 신선 식품 배달을 위한 냉동, 냉장 물류(트럭, 창고 등)
	동대문 풀필먼트	- 동대문 의류, 잡화를 위한 통합 물류 시스템

자료 : 언론자료 취합

■ 풀필먼트, 매장 전용, 킥커머스 등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

- 쿠팡, 이마트 등은 상품 수(SKU) 확대, 주문 처리 및 배송 속도 개선을 위해 온라인 쇼핑에 특화된 통합 물류 시스템인 풀필먼트 구축에 각각 약 1조원의 추가 투자 계획
  - 쿠팡 :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 5조원의 20%인 1조원을 투자하여 진해, 창원, 청주, 부산 등 4개 지역에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할 계획
  - 이마트 : 2021년 현재 일 13만건 처리물량을 2025년 39만건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4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온라인 전용 풀필먼트 센터 ‘네오’를 추가 구축
-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는 도심지에 위치한 오프라인 매장을 근거리 배송 창고로 일부 또는 전부 전환하여 보유 부동산의 효율화 및 온라인 경쟁력 강화 추구
  - 이마트 :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배송, SSG 협업을 위한 PP센터로 전환
    - ※ 이마트 신도림점 : 신도림점 영업면적 중 약 300평을 PP센터로 전환(20평 → 320평) 하면서 올해 8월까지 누적 온라인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09.1% 상승
  - 롯데마트 :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 B2C 물류 거점화를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스마트 스토어(상품 선택, 분류, 포장 통합) 8개, 세미 다크 스토어(포장 자동화) 18개 확보
- 배송 시간 단축 경쟁과 음식 배달 플랫폼의 상품 범위 확장은 B마트, 우리동네 딜리버리 등의 도심지 MFC를 활용한 신속 물류 시스템, 킥커머스를 확대시킴
  - 배달의 민족 : 2019년 11월 생필품을 주문할 수 있는 ‘B마트’ 출시. 도심지에 콜드 체인 기능이 포함된 MFC를 구축하고 30분~1시간 이내 신속 배송 서비스 제공
  - GS리테일 : 편의점, 슈퍼마켓 점포를 이용한 1시간 배송 ‘우딜-주문하기’ 런칭
  - 현대백화점 : 이동형 MFC(콜드체인 전기트럭)를 통한 신선식품 배송 시범운영(압구정)

그림17 | 쿠팡의 풀필먼트 시스템



- 풀필먼트 : 주문, 재고 관리, 포장, 배송, CS 등 온라인물 관련 상품 관리 전 부문을 통합한 물류 시스템
- 쿠팡 : 전국 80여개 풀필먼트 센터(총 170여개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물 거래액 2위, 매출액 1위로 성장

자료 : 쿠팡, 언론자료

그림18 | 롯데마트의 오프라인 매장 전용 사례(다크 스토어)



(롯데마트 광고점)

- 다크 스토어 : 비대면 소비 확대로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감소하는 추세 하에서,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물류 거점으로 전환
- 롯데 마트는 ‘바로 배송’ 서비스를 위해 점포 일부를 포장 물류 시설로 전환한 세미 다크 스토어를 도입했으며, 상품 선택, 분류 까지 기능을 확장한 다크 스토어(스마트 스토어)도 확대

자료 : 한국경제, 롯데, 언론자료

■ **음식, 신선식품, 의류 등 배송 상품 특성에 따라 배달, 콜드 체인, 동대문 풀필먼트 등이 발달**

- 음식 배달 서비스는 외출 기피로 침체된 외식업에 비대면 판로를 제공하면서 2021년 3분기 누적 58.2%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단건배송, 원거리 배송 등으로 다변화
  - 쿠팡 이츠 : 주문 한건 당 라이더 한명을 배치하여 배송 시간을 단축한 단건 배송이 강점
  - 멩굴마켓 : 기존 음식 배달의 근거리 배송과 차별화된 '맛집 원거리 배송'으로 성장
- 콜드 체인 방식은 온라인 장보기 확산으로 신선식품 온라인 구매가 크게 성장하면서 마켓컬리, SSG몰 등에 의해 적극 투자되고 있으며, 최근 백신 배송으로 중요도 상승
  - 콜드 체인 : 냉장·냉동 기능을 탑재한 패키징, 운송 트럭, 물류 창고 등의 물류 인프라
- 의류 분야에서는 제작, 도매, 소매가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동대문 패션 시장에서 주문, 처리, 배송 등을 디지털화한 '동대문 풀필먼트'가 성장세를 나타냄
  - 브랜드 : 동대문 패션 시장의 주문 수집, 사입, 배송, CS를 통합한 풀필먼트 시스템 개발

■ **소매유통업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속에서 최근 고비용 물류 투자가 확대되는 점은 우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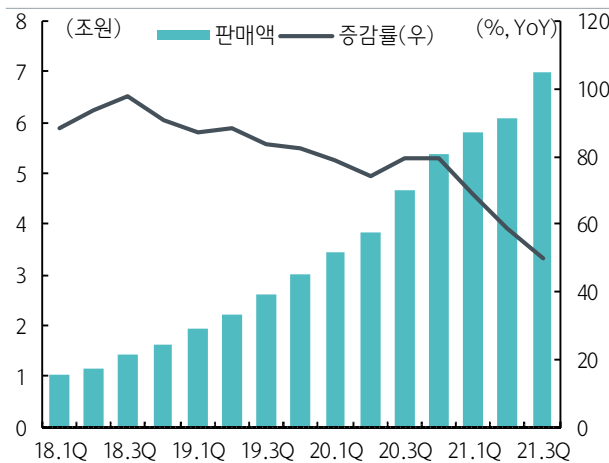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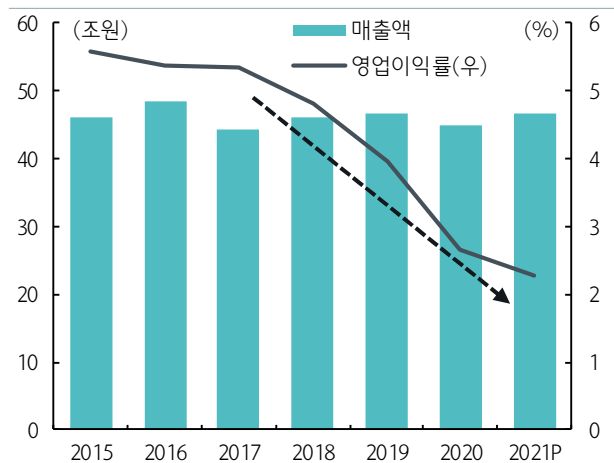
- 코로나 이전부터 소매유통업에서의 온라인 영향도가 확대되면서 가격 경쟁 심화 및 물류 투자 부담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추세
  - 소매유통업 주요 11개 상장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7년 5.3%에서 2019년 3.9%, 2020년 2.6%로 저하되었으며 2021년 매출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저하는 지속
-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풀필먼트 센터, 도심지 MFC, 콜드 체인 등 고비용 물류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 업체들의 안정성 악화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그림19 | 음식서비스(배달) 판매액 성장 추이



자료 : 통계청

그림20 | 소매유통업체 재무 실적 추이



주 : 2020년 기준 연매출 5천억 이상 11개 상장사 기준  
 자료 : 언론자료 취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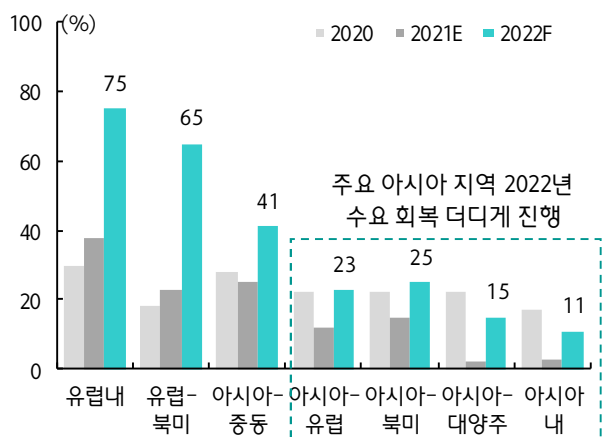
## N752. 여행 : 워드 코로나 시행, 아웃바운드 여행 회복으로 이어지나?

※ **Summary** : 유럽, 미주 등 선진국 중심으로 방역이 완화되면서 국제 이동에 대한 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IATA에서는 2022년 세계 항공 여객 인원이 2019년의 약 75%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 한국과 사이판/싱가포르 간 트래블 버블이 체결되고, 11월부터 워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확대되는 중. 한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 및 우수한 방역 신뢰도 등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주요 여행사들은 외국인 관광 가능 지역 중심으로 여행상품을 출시하는 등 대응하고 있어 금년 12월부터 점진적으로 여행수요가 회복될 전망

### ■ 유럽, 미주 등 선진국 중심으로 워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제 이동에 대한 장벽이 점차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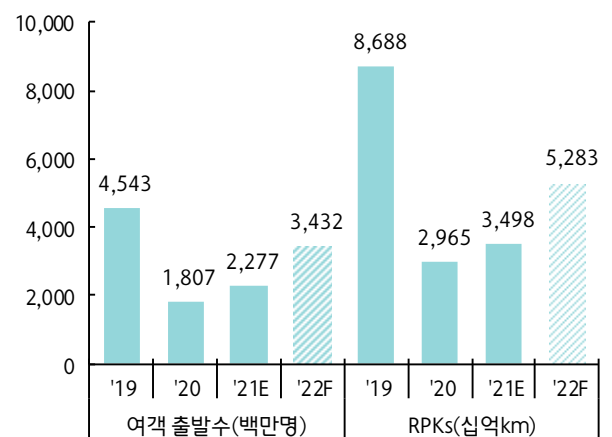
- 북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집단면역의 기준선인 70%에 근접해 감에 따라 국제적인 이동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
- IATA에 따르면, 2022년 세계 항공여객 인원은 2019년의 약 75% 수준으로, 유상여객킬로미터는 약 61%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백신 접종률 및 보건 정책 차이 등으로 지역별 회복 속도는 상이할 전망
- IATA는 아시아의 국제 이동이 가장 느리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 및 우수한 방역 신뢰도 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이 가능할 전망
  -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가 북미/유럽보다 보수적으로 방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아시아 개도국들의 백신 접종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가장 더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그림21 | 주요 지역간 국제선 노선 회복 전망



주 : 2019년 대비 RPK(Revenue Passenger Kilometer) %  
 RPK는 유상 여객 킬로미터로 각 운항구간의 유상 여객수에 구간거리를 곱한 합계로 1RPK는 여객 1명을 1km 운송하는 것을 말함  
 자료 : IATA(2021.10.4)

그림22 | 글로벌 항공 국제이동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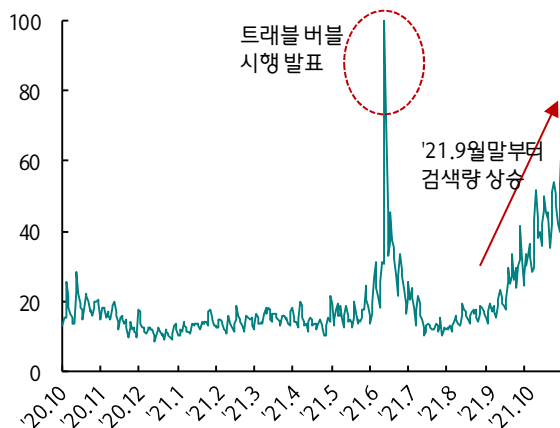
자료 : IATA(2021.10.4)



■ **사이판/싱가포르 대상 트래블 버블 시행 및 워드 코로나 정책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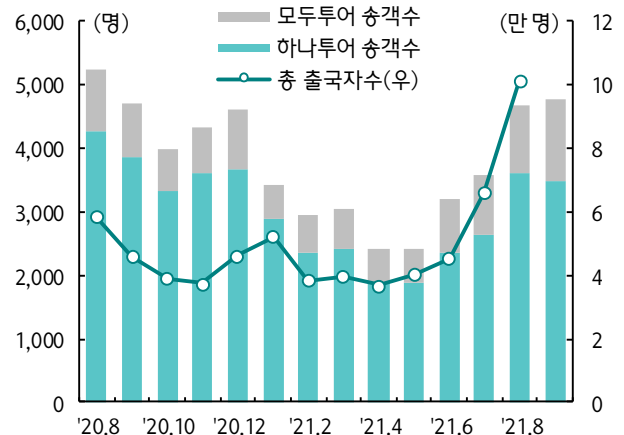
- '21년 6월 한국-사이판 간 첫 트래블 버블이 발표되었고, 7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해외 입국시 2주간 자가격리 면제를 발표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상승
- 해외여행 관련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로 봤을 때, 백신 접종률 가속화로 워드 코로나 시행이 점차 현실화된 9월말부터 검색량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은 현재 사이판 및 싱가포르와 제한적으로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시행 중이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확대
- 첫 트래블 버블 시행지인 사이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 개별여행이 아닌 단체여행만 가능하며, 지정된 호텔에서 5일간 자가 격리가 요구
  - 7월 24일 첫 항공편이 운행되었으며, 운항 편수는 180석 주 3회 수준(팬데믹 이전 주 40회)임
- 싱가포르와의 트래블 버블은 11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자가 격리 없이 단체/개별 여행 가능
- 트래블 버블 시행국가 외에도 외국인의 여행이 가능한 하와이, 괌 등이 주목받고 있으며, 워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중인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유럽지역도 관심 증가
- 다만, 국내 주요 아웃바운드 여행지였던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및 일본이 여전히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베트남·필리핀·대만 등 동남아 지역도 개방이 지연
  - 중국은 2022 북경올림픽 개최로 '제로코로나' 정책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1년 10월부터 워드코로나로 전환되었으나 변이바이러스 우려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지속 중
- 국내 월간 출국자수는 2021년 8월 들어 소폭 증가하였으나, 과거 월평균 수준의 1/20에 불과하며, 하나투어 및 모두투어의 2021년 9월 합산 송객수도 여전히 저조

그림23 | '해외여행' 키워드 일간 검색량 추이



주 : 조회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하여 상대적 변화  
자료 : 네이버

그림24 | 최근 월간 출국자수 및 주요 여행사 송객 동향



주 : 총 출국자수는 승무원 제외 기준  
자료 : 하나투어, 모두투어, 통계청

표4 | 주요 관광 재개 국가 및 자가격리 면제 조건

지역 및 국가	백신 접종 완료율*	격리 유무	자가격리 면제 조건	비고
미주	사이판	60.2%	○ - 백신 접종 증명서와 코로나 음성 확인서 - 지정 호텔에서 5일간 격리 후 여행(단체여행만 가능) - 격리기간 숙식부 주 정부 지원	트래블 버블 시행 (21.6.30~)
	괌	71.4%	× -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 - 자가격리 기간 없음 - 식당, 백화점 등 실내시설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쿠브 앱 사용 가능)	
	하와이	59.5%	× - 한국 7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 - 입국 전 하와이 주 웹사이트에서 건강 확인서 작성	21년 11월부터 대한항공 재취항
	미국(본토)	56.7%	× - 11월 8일부터 항공편 입국 외국인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 및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증명서 제시(18세 미만은 백신 접종 완료 면제)	
유럽	프랑스	67.5%	× -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 - 식당, 박물관 등 실내시설 출입 위한 보건패스 필요(프랑스 외교부 사이트에서 발급)	
	스위스	62.2%	× -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 - 실내 시설 출입 위한 코로나 증명서(스위스 연방 보건국 사이트에서 발급)	
	스페인	79.6%	× - <b>백신 접종 증명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 불필요</b> - 스페인 도착 48시간 전 보건부 사이트에서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21년 7월 외국인 입국자수 과거의 50% 수준 회복
	영국	66.8%	× - 백신 접종 증명서 및 코로나 음성 확인서 - 영국 도착 48시간 전 '공중 보건 탑승객 위치 확인서' 작성, 여행 일정 및 연락처 정보 제공 필요	
	터키	56.6%	× -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	
아시아 및 기타	싱가포르	79.6%	× - 백신 접종 증명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 백신 여행 패스 사전 신청 - 트래블 버블 협정에 따라 개인 및 단체여행 가능	트래블 버블 시행 (21.11.15~)
	태국	37.9%	× - 푸켓, 코사무이 등 섬 지역을 부분 개방 중 - 백신 접종 증명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 필요 - 지정 숙소 예약, 여행자 보험 가입 후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입국 허가서 발급 - 11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 저위험 국가에 개방	21년 11월부터 대한항공/제주항공에서 치앙마이 전세기 취항
	몰디브	65.1%	× - 코로나 음성 확인서 혹은 백신 접종 증명서 - 출국 전 몰디브 이민국 사이트에서 건강신고서 작성	몰디브 관광청-팜투어 공동 프로모션, 신혼부부 400쌍 예약
	인도네시아	24.6%	○ - '21년 10월 14일부터 발리/빈탄/바탐 섬을 개방 - 8일 이상 격리, 격리할 호텔 증명서도 당국에 제출, 비용은 관광객이 부담	항공편 없음
	베트남 (푸꾸옥)	22.4%	× - 백신 접종 완료자 및 코로나19 진단 음성자 대상 푸꾸옥 섬 6개월간 시범 개방(11월 20일~) : 지정 리조트 내에서만 휴식/관광 가능 - 이후 하롱베이, 나짱 등 관광지 순차 개방 검토 중	

주 : 백신접종 완료율은 2021년 10월 26일 조희 기준  
자료 : Our World in Data, 언론보도 종합


- 주요 여행사들은 외국인 관광 가능 지역 중심으로 신규 여행 상품을 출시하는 등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금년 12월부터 점진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주요 여행업체들은 10월을 전후로 정상 근무체제로 전환하며 여행수요 회복에 대응
  - 주요 여행 지역은 트래블 버블이 시행되는 사이판 및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괌, 하와이, 태국(치앙마이) 등이며 유럽지역도 패키지 관광 중심으로 상품 구성
    - 유럽 패키지의 경우 과거 3~5개국 관광 위주에서 최근 단일 국가 여행으로 변화(입국 규정)
  - 코로나19 관련 준비 서류가 복잡하고, 현지 방역 상황도 유동적인 만큼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쉬운 여행사를 통한 단체 여행 수요가 당분간 우세할 가능성
  - 국가별 방역 정책의 차이로 인해 국내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는 트래블 버블 국가 및 주요 방역 신뢰국에 집중될 전망이며, 연말부터 점진적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표5 주요 여행사별 현황 업데이트

회사	주요 경영 현황	여행상품 개발 및 프로모션
하나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초 고강도 구조조정 진행하여 직원수 2,400명에서 현재 1,200명으로 감소</li> <li>- <b>21년 10월부터 전 직원 정상근무 체제 전환</b>, 상시 출근 인원은 전체의 90% 수준</li> <li>- 위드 코로나 새출발 위해 CI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판 여행 상품 연말까지 완판, 8000명 예약 마감</li> <li>- 싱가포르 여행관련 상품 2종 출시</li> <li>- 4인이상 소그룹 여행상품인 '우리끼리 괌' 출시</li> <li>- BTS 미국 공연 관람을 위한 에어텔/투어텔 상품 판매</li> <li>- 2022년 설 연휴 해외여행 상품 프로모션 실시</li> <li>- 주 마케팅 지역: 괌, 싱가포르, 유럽, 치앙마이, 하와이</li> </ul>
모두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7~8월 대규모 구조조정 실시(전체 임직원 1000명 중 약 300명 퇴직)</li> <li>- <b>단계적 정상근무 체제 전환 중</b>(주당 근무일 3일에서 4~5일로 상향 조정 중)</li> <li>- B2B 대리점 영업 재개 지원책 준비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월 8일~29일, 마드리드(IN)/바르셀로나(OUT) 전세기 운항 확정 및 1~2월 출발하는 푸꾸옥, 코타키나발루, 치앙마이 노선 추가 운항을 협의 중</li> <li>- 2022년 설 연휴 괌, 사이판, 싱가포르 전세기 운항</li> <li>- 유럽, 캐나다, 미국 상품 라인업의 재 정비 및 확대</li> </ul>
인터파크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1년 9월부터 정상근무 체제</b>. 여행사 중 가장 먼저 정상화</li> <li>- 21년 6월, 자유여행플랫폼 '여행계획' 오픈. 시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자유여행 일정 제공 및 구매 가능한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판 패키지 상품은 연말까지 예약 마감(1,200명)</li> <li>- 코로나19로 신혼여행 유보 고객 대상 '얼린 허니문 패키지' 출시(보라카이, 세부, 다낭, 발리 등 근거리 휴양지 대상으로 자가격리 해제후 원하는 시점 출발)</li> <li>- 발리, 태국, 싱가포르 패키지 여행상품을 출시(10/19)</li> </ul>
노랑풍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점진적으로 근무인원 복귀 중</b>, 10~11월 정상근무 체제 돌입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 13일부터 '유럽 어게인' 기획전 시작. 두바이, 터키, 스페인, 스위스 등 중심 상품 구성</li> <li>- 롯데홈쇼핑의 T커머스채널인 '롯데원티비'를 통해 괌 여행상품 판매</li> </ul>
롯데관광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0월말~11월초부터 정상근무 체제 본격 검토</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9월말, 실내 관광을 최소화하고 실외 관광 위주인 스위스 패키지 여행 상품 출시</li> </ul>
참좋은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유럽팀 및 미주팀만 전원 출근중이나, <b>11월부터는 휴직자 절반 이상이 정상 출근할 예정</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터키 중 한 나라를 골라 9~10일 여행하는 '한 나라 일주' 상품과 체코/오스트리아 2개국을 9일간 여행하는 상품 출시. 출발일 기준 11월 25개, 12월 25개 상품이 출발 확정</li> </ul>
한진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10월부터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전체 230명 중 100여명 감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 2일/4일 각각 스위스 및 프랑스 일주 출발 완료, 10월 25일, 11월 1일 프랑스 출발 상품 출시</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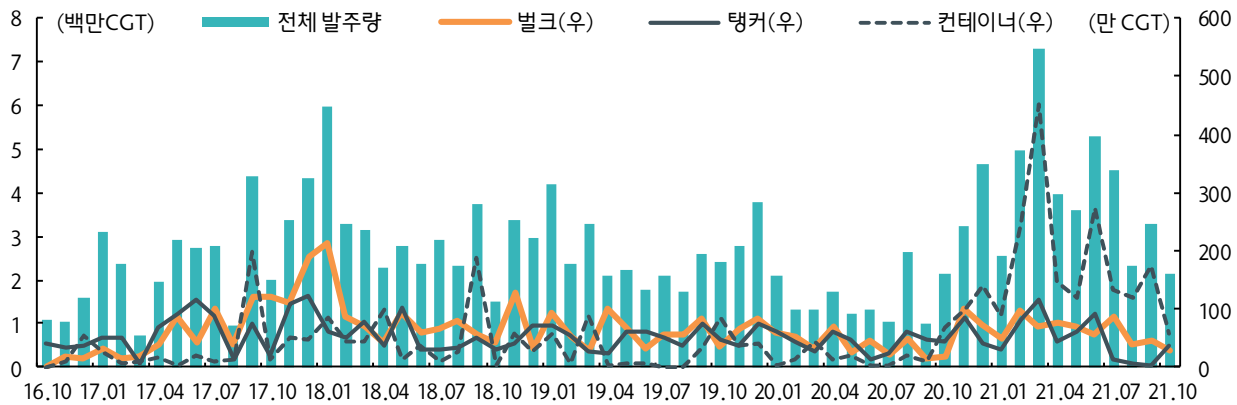
자료 : 언론보도 종합

## 산업별 주요 지표

조선(C31)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1 | 전 세계 선박 발주량(선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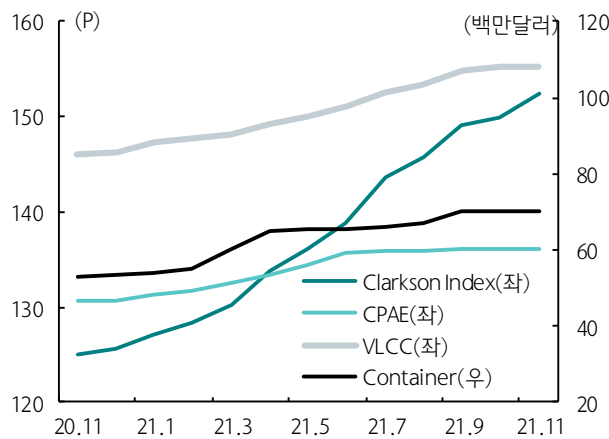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10월 전 세계 상선 발주량은 올해 월별 기준 최저수준으로 급감하며 코로나19 영향 지속

- 10월 전 세계 상선 발주량은 약 213만 CGT로 전월대비 35.3% 감소하였으며,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발주가 전월 대비 66.6% 감소한 반면 탱커선 발주는 1616% 증가하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 10월 주요 선종별 발주 척수(총 71척) : 컨테이너선 16척, 벌크/탱커 각 14척, LPG선 9척, LPG선 5척, 케미컬선 2척 등

**그림2 | Clarkson 신조선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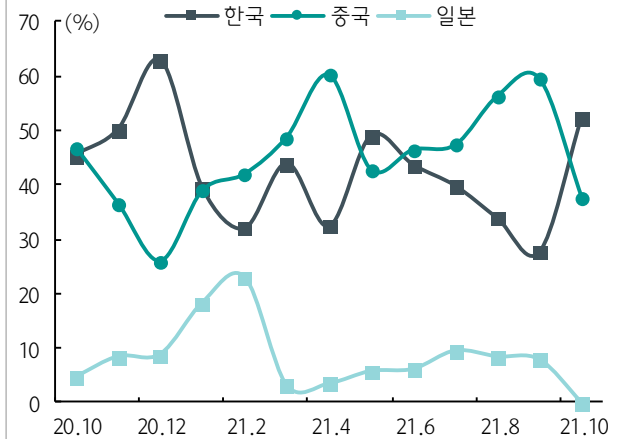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10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52p 기록

- 10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152p를 기록하며 강세가 지속되는 양상 보임
- 주요 선종별 신조선가 : Cape선 \$60.3M, VLCC \$108M, 5,500TEU 컨선 \$70M, 174K CBM LNG선 \$203M

**그림3 | 국가별 상선 수주점유율**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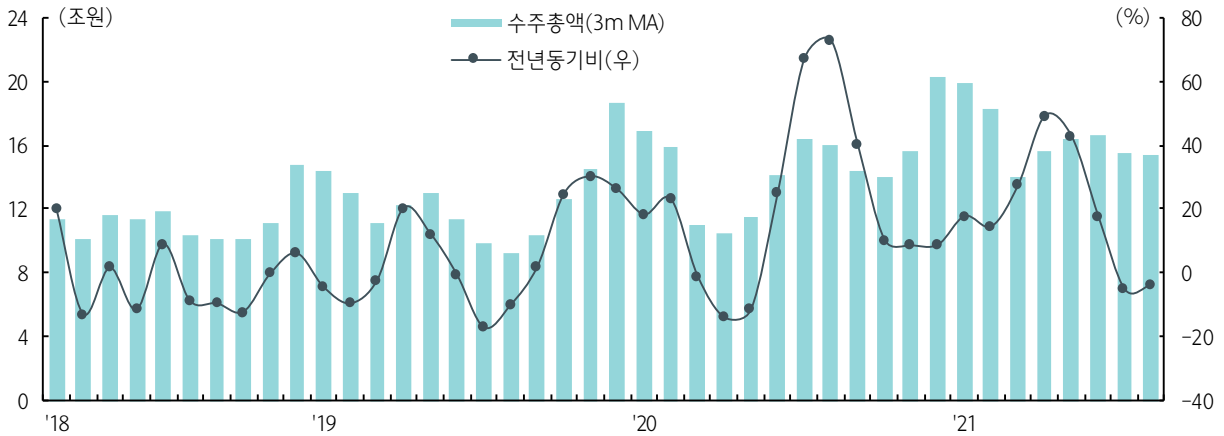
■ 10월 국가별 수주점유율은 한국이 1위 재탈환

- 10월 국가별 수주점유율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52.4%와 37.8%를 기록하였으며, 일본은 수주 0척 기록
- 한국 수주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각 4척, 현대미포 3척, 현대미포 2척, 중소 조선사 10척

건설업(F)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4 | 건설사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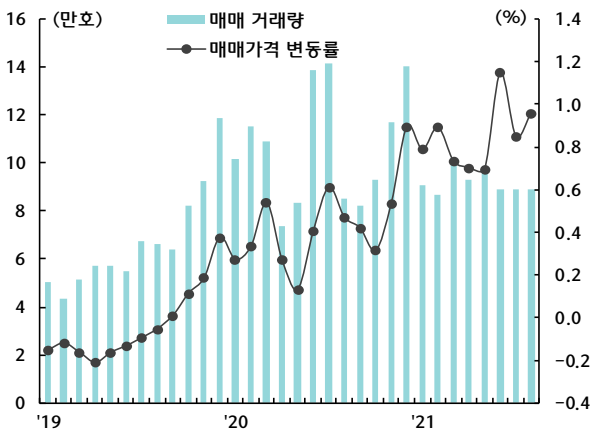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주택경기 활황 장기화에 힘입어 건설수주 증가세 지속

- 주택경기의 활기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에 다소 주춤했던 비주택 건축 수주 역시 활발히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건설 수주를 견인하는 중
- 6월 이후 수주액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으나 이는 전년 하반기 이후 수주액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최근의 주택시장 활황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추후 수주액은 증가로 전환될 전망

그림4 | 주택 매매가격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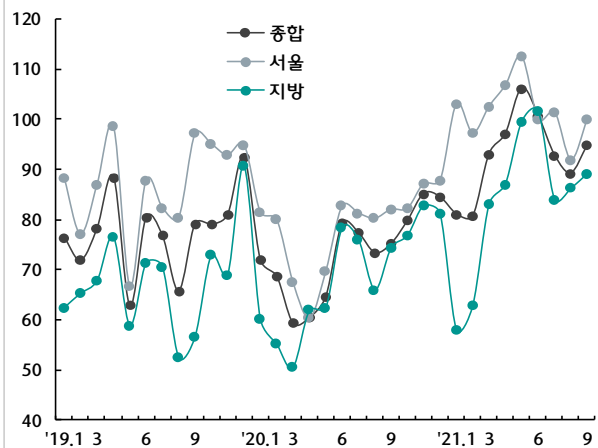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 높아진 가격수준으로 매매거래는 크게 위축

-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 상승폭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 중
- 다만, 높아진 가격수준, 통계적 반락 등의 원인으로 주택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15%p 가량 감소

그림6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전국에 걸쳐 건설사 체감경기는 양호한 편

- 주택시장 장기 활황에 따라 수도권 외 지방에까지 건설사들의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
- 특히, 지방 미분양이 1만호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주택분양 경기가 크게 호전

유통(G)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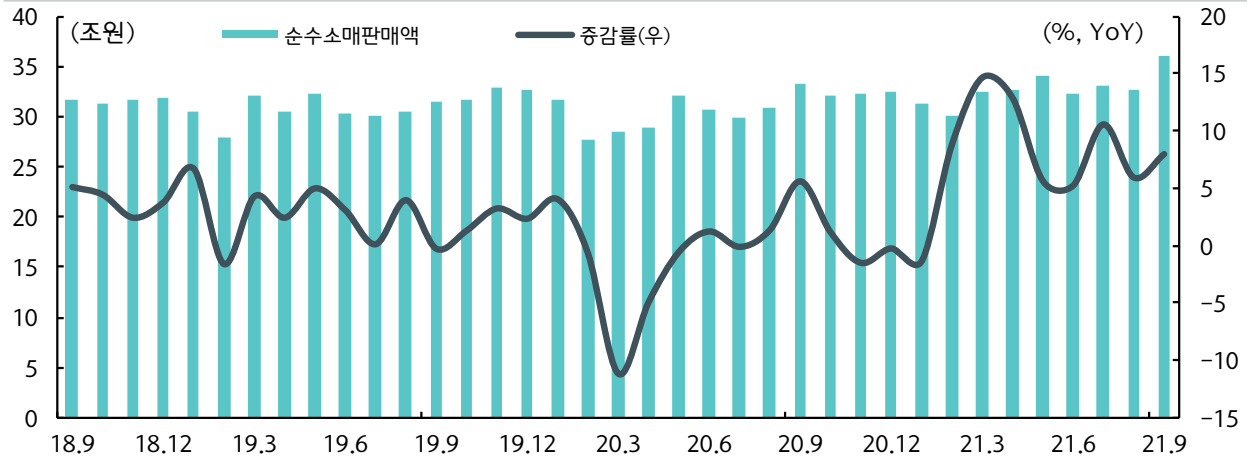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7 | 순수소매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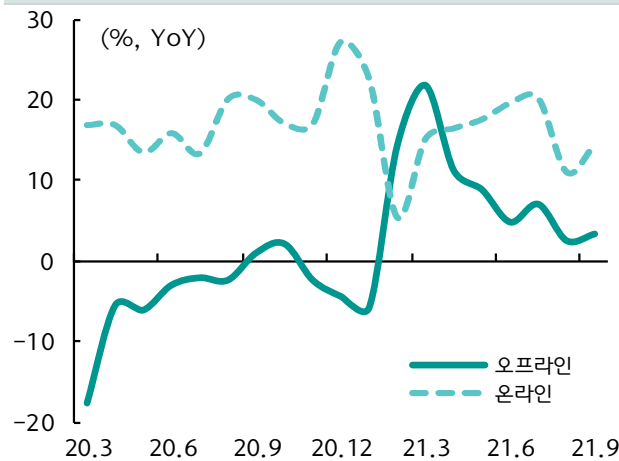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9월, 4차 코로나 확산세 하에서도 명품, 추석 특수, 온라인 식품 등의 긍정적 영향으로 성장세

- 순수소매판매액(자동차 및 연료 판매액 제외)은 4차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심리 하에서 명품 호조, 추석 특수, 식품의 온라인 판매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7.9% 성장

그림8 | 주요 오프라인 업체들의 매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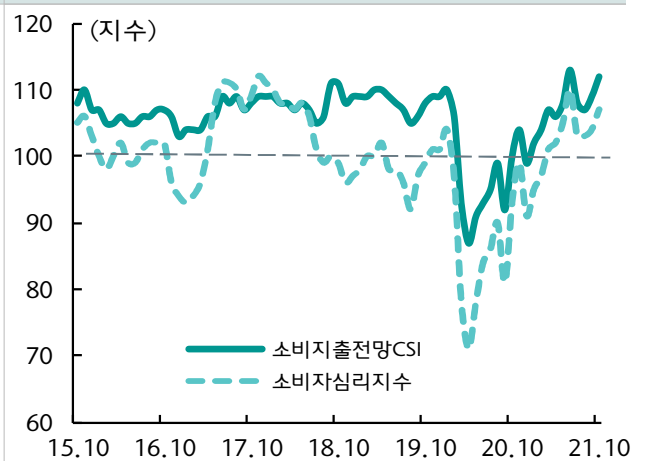
주: 오프라인-편의점(3사), SSM(4사), 백화점(3사), 대형마트(3사)  
온라인-온라인판매중개(4사), 온라인판매(9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9월, 온라인 장보기와 추석 특수로 온라인 성장

- 오프라인 판매액은 대형마트, SSM 등이 침체되었으나, 백화점, 편의점 등이 성장하며 전년동월대비 3.3% 성장  
- 온라인은 온라인 장보기에 따른 식품의 지속적인 판매 증가와 추석 특수 기반 e쿠폰 호조로 높은 성장세 유지

그림9 | 소비 심리 지수, 소비 지출 전망



자료: 통계청

■ 10월, 워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소비 심리 회복

- 코로나19로 크게 침체되었던 소비 심리의 개선세가 지속 되면서 2021년 6월에는 소비심리지수는 110을 기록  
- 9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를 기록하였으나 워드 코로나 기대감에 따라 10월 107로 개선세 회복

## 하나 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TEL 02-2002-2200  
FAX 02-2002-2610  
<http://www.hanafn.com>